



“집행부 로드맵 적극 지지”

피라미드치과 척결 동참 의지 다져
시도지부장협의회 긴급회의

시도지부장들이 앞으로 전개될 치협의 일부 피라미드치과 척결을 위한 싸움에 적극 동참해 지원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시도지부장협의회(회장 고천석 부산회장)는 8월 27일 대전역 인근 한 음식점에서 김세영 협회장, 김명수 대의원총회 의장, 안민호 총무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긴급 회의를 열고 앞으로의 투쟁 방향과 로드맵에 대해 논의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날 김세영 협회장은 1시간 20분에 걸쳐 그동안 치협이 준비하고 진행해온 피라미드치과 척결을 위한 노력들을 설명하고 앞으로의 투쟁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지부장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협회장은 “치협을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조사시킬 정도로 저들의 조직력과 자금력은 막강하다. 결코 우습게 보면 안 된다”며 “이번 싸움을 쉽게 생각해서는 절대 이길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협회장은 특히 “영리법인병원이 허용될 경우 피라미드형 네트워크치과가 날개를 달게된다. 곧 영리법인병원을 반대하는 운동

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며 “현 정권에 반대하는 침예한 문제인만큼 지도부에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를 수 있다. 나는 각오가 돼 있다”며 지부장들의 현명한 판단과 의지를 물었다.

지부장들은 “김세영 협회장이 생각하는 투쟁 로드맵이 옳고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방안”이라며 “지부장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열심히 지원하겠다”며 김 협회장에게 힘을 실어줬다.

군진자부를 제외하고 17개 지부장들이 모두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지부장들이 치협 집행부와 의 소통을 강화하면서 치협을 적극 지원키로 결의함에 따라 앞으로 치협이 전개하는 싸움에서 더 큰 힘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천석 협의회 회장은 “치협과 지부장들이 지금 시점에서 전열을 정비해 앞으로의 방향을 정해야해서 모였다”며 “오늘 로드맵을 잘 들었다. 김 협회장에게 힘을 모아주자”고 당부했다.

한편 지부장들은 최근 MBC 'PD수첩' 보도에서 문제가 된 베릴륨을 포함한 메탈을 수입한 (주)한진덴탈의 이태훈 대한치과기재협회 회장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치이들, 영리병원 저지 거리로

도입반대 결의문 채택·홍보포스터 배포도
영리병원 저지·불법네트워크 척결 '치과의사 행동의 날'

영리병원 반대와 불법 네트워크의 비윤리적인 행태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치과의사들이 직접 길거리로 나섰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와 대한치과개원의협회가 주관하고 치협이 후원하는 '영리병원 저지와 불법 네트워크 치과 척결을 위한 치과의사 행동의 날'이 8월 27일 서울 혜화동 마로니에 공원에서 치과의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 윤리를 무너뜨리는 영리병원을 반대한다는 구호를 외치고 캠페인 및 퍼포먼스를 벌였으며, 영리병원의 폐해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U모 네트워크 문제점에 대해 홍보 포스터를 시민들에게 제작·배포해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특히 지나는 시민들은 캠페인을 보고 관심을 표명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영리병원에 반대한다는 서명을 하기도 했다.

김철신 치협 정책이사는 “의료가 돈벌이로만 이용될 때 우리 사회의 미래는 없을 뿐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미래도 없다”면서 “돈벌이에 혈안이 된 의료는 의료가 아닌 독으로 국민들의 건강에 큰 해를 끼치게 될 것으로 U모 네트워크가 그것을 증명해 보이고 있으며, 반드시 영리병원을 반대해야 하고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정책이사는 정부가 영리병원 도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국민들의 건강을 불모로 발암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불법 네트워크가 유사 영리병원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폐해가 이미 입증됐는데 정부는 언제까지 보고만 있을 것인가”를 따져 물었다.

한편 이날 행사에 참가한 치과인들은 단체 결의문을 발표하고, 영리병원 도입에 반대하는 강력한 의사를 전달했다.

“국내 등록비만 10억 절감 효과”

2013년 FDI 서울총회 재협상 극적 타결 등록 수익금 배분도 한국측 유리 재조정



2013년 FDI 서울총회의 재계약을 위한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FDI 서울총회 재협상 결과, 국내 치과의사들의 사전등록비가 당초 220유로보다 약 30%(1인당 약 10만원) 인하된 160유로로, 아시아 태평양지역 치과의사들의 사전등록비는 당초 220유로보다 약 20% 인하된 180유로로 잠정 결정됐다. 국내 치과의사 1만명이 등록한다고 예상할 때 약 10억을 절감하는 효과를 얻어낸 셈이다(9월 23일 현재 환율 1유로=1614원 기준). 아시아 태평양 지역치과의사 등록비와 수익금 배분 문제를 고려한다면 절감 효과는 '10억+' 이상이 될 것이라는 예상도 가능하다.

이번 재협상에서는 등록비를 인하했을 뿐만 아니라 FDI와 치협과의 등록 수익금 배분 문제도 한국 측에 유리하게 재조정하는 성과를 얻어냈다.

멕시코시티로 파견된 2013년 서울총회 재계약 협상단(단장 홍순호)은 9월 16일 멕시코시티 CBCEC에서 가진 재협상 2차 회의에서, FDI 측으로부터 한국에서 제안하는 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파격적인 협상 결과를 얻어냈다. 이번 협상결과는 잠정적인 것으로 FDI 측과 긴밀한 연락을 취하면서 10월 말경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아이즐리 사무총장은 “한국의 교섭능력이 뛰어났다. 한국측의 의견을 받아들여기로 했다”고 회의 서두에 발언, 이에 한국 협상단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이날 재협상 회의에 앞서 홍순호 단장은 “고 윤홍렬 선배님이 생각났다. FDI 회장까지 지내면서 한국의 위상을 이끌어 놓으셨는데 내가 그 분이 남겨놓은 업적에 누를 끼치면 어쩔까 걱정이 많이 앞선다”고 말했으나 이런 우려를 일축시키는 결과를 얻어낸 것이다.

이날 회의에 앞서 9월 11일 열린 첫 번째 회의에서 홍순호 단장은 'How to Carry out 2013 FDI AWDC in Seoul Successfully?'를 제목으로 한 프레젠테이션에서 한국 측의 협상 요구 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초반 협상 난항... 오픈포럼 3에서 분위기 역전 호주 등 우군 적극 협조... 한국 응호 발언 잇따라

FDI 협상단의 초반 현지 분위기는 험악했다.

11일 열린 1차 협상회의에서 이사진들은 한국 측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협상단은 이날 저녁에 열린 ADA 리셉션에서 이사진들을 개별 접촉했으나 이미 계약서에 사인을 했기 때문에 재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접했다. 또 이번에 집행부가 바뀌기 때문에 17일 열리는 신임 이사회에서 논의해보라는 책임 회피성 발언은 협상단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홍순호 단장은 이사진을 공략해서는 이번에 좋은 성과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주변국에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다. 11일 이사회 전에 열린 7개국 Perth Group Meeting에서 참가국들이 한국을 옹호하는 분위기를 감지했기 때문이다.

홍순호 단장은 “11일과 12일 열린 ADA 리셉션, 총회 A, 코리안 런천, ADF(프랑스치협) 리셉션 등의 행사에 참여하면서 이사진들을 개별 접촉한 결과 이사를 반응이 매우 부정적이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13일 열린 4개국 회의에서 실마리를 찾고 총회를 공략하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일본, 호주, 뉴질랜드, 한국이 참여하는 4개국 회의에서 호주와 뉴질랜드가 2012년 홍콩 개최 결정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한국의 재협상에 대해 협조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홍순호 단장은 14일 열린 '오픈포럼 3'에서 의장으로부터 발언 기회를 얻고 한국의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호주, 스페인, 독일 대표 등의 지지발언이 이어졌고, 분위기는 역전됐다. 홍순호 단장은 동시에 이사진들을 개별 접촉하면서 계약서상의 불합리한 점을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짚어가면서 알리는 양공작전을 펼쳤다.

결국 이에 압박감을 느낀 이사진은 16일 총회 B가 열리기 전인 오전 재협상 회의에서 한국측의 의견을 전격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세영 협회장은 이와 관련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FDI 서울총회를 반납하겠다는 각오로 협상에 임하도록 했다. FDI 서울총회를 반납하게 될 경우 상대방의 보증금을 물어줘야 하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준 협상단의 노고를 치하한다”며 “국내 치과의사의 등록비를 좀 더 낮출 수 있도록 최종적으로 재계약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